

정읍시, 원도심 상권 부활 꿈꾼다

새암로·쌍화차거리·우암태평로 등 도시재생사업 착수 가로환경 정비·야간경관조명 설치 '명품특화거리' 조성

정읍시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읍시는 새암로, 쌍화차거리, 우암태평로 등 정읍 대표 거리를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야간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명품특화거리로 조성한다.

이 사업은 '시민장안 300거리 프로젝트 사업'으로 국토부 공모 사업에 따라 진행된다.

시민장안 300거리란 시민들이 회의를 통해 직접 장안해 낸 이름으로 샘골시장, 시기성당, 우암태평로가 각각 100년 이상 된 것을 의미한다.

시민장안 300거리 프로젝트사업에는 국비 32억원, 시비 32억원 등 총 64억원이 투입된다. 5월 중 거리별 환경개선사업에 착수하여 2020년 상반기 내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쌍화차 특화거리"는 쌍화차 상징 경관 조형물과 안내사인, 고풍스런 이미지의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내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패션의거리 새암로"는 기존 거리형태를 유지하면서 상징조형물과 조명 등 설치를 하고, '빛의거리, 장업의거리 우암태평로'에는 시기성당을 활용한 야간조명과 진입 게이트, 썸지공원이 조성된다.

쌍화차거리와 우암태평로는 사업비 21억5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지중화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쌍화차거리와 우암태평로는 특화거리가 조성된 후 기존의 양방향 교통체계가 일방통행으로 변경되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걷고 싶은 거리로 거듭날 예정이다.



정읍시 원도심을 명품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시민장안300거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읍 '전설의 쌍화차거리' 일대. <정읍시 제공>

유진섭 정읍시장은 "3개 거리가 정읍시의 특색을 살린 명품거리로 조성되어 침체된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미래 발전기획단' 출범

5개분과 위원 48명 구성...군정 현안논의·정책과제 수행

순창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싹크탱크 역할을 할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이 출범했다.

순창군에 따르면 군 미래발전기획단이 지난 7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사진>

위촉식과 함께 열린 1차 회의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기획단 위원과 관련 실과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미래발전기획단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어 공동위원장과 분과위원장 선출 및 향후 기획단의 역할과 운영방안 등에 대한 논의했다.

기획단은 일반행정과 농업·농촌, 문화관광, 보건복지, 발효미생물 등 총 5개 분과 4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일반행정분과에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전북대 설경원 교수가 분과위원장을 겸임한다.

농업농촌분과에는 (주)퍼포먼스웨이컨설팅 오우식 박사가, 문화관광분과에는 설정환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보건복지분과에는 이장재 전 서울대 교수가, 발효 미생물 분과에는 유강열 전주 농생명소재연구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앞으로 기획단은 공동위원장을 중심으



로 수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 군정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또 기획단이 전국 단위의 기획단으로 구

성된 만큼 시기와 장소를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인 실무중심의 운영에 중점을 두기로 해 한층 기대되고 있다.

/순창=장영민 기자 iyg@

익산시, 제3일반산단 폐수관로 연장 설치사업 완료

익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제3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원활한 폐수처리를 위해 추진된 폐수관로 설치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2억원을 투입해 제3산단내 패션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할 수 있도록 폐수관로 846m를 연장했다.

시는 지난 2014년 패션단지 조성단계에서 관로 816m를 설치한 바 있으나 미설치 구간이 있어 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공사를 진행, 이달 설치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패션단지에 입주한 모든 기업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해 폐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주요리 기업은 제품 제조과정에서 구리, 아연 등이 함유된 폐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된 물은 단지 내 침전조를 통과해 관로에 유입된다.

이는 패션주요리 공동연구개발센터 폐수처리장과 제3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쳐 최종 방류하게 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군산항 등 해양기상신호표지 여객선 항로 중심 운영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군산항 등 일부 해역에 설치한 해양기상신호표지를 여객선 항로 중심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9일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해양기상신호표지는 바다의 교통신호등인 등대에 설치해 국지적인 해양기상정보(풍향, 풍속, 온도, 습도, 시정 등)를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첨단 항행정보 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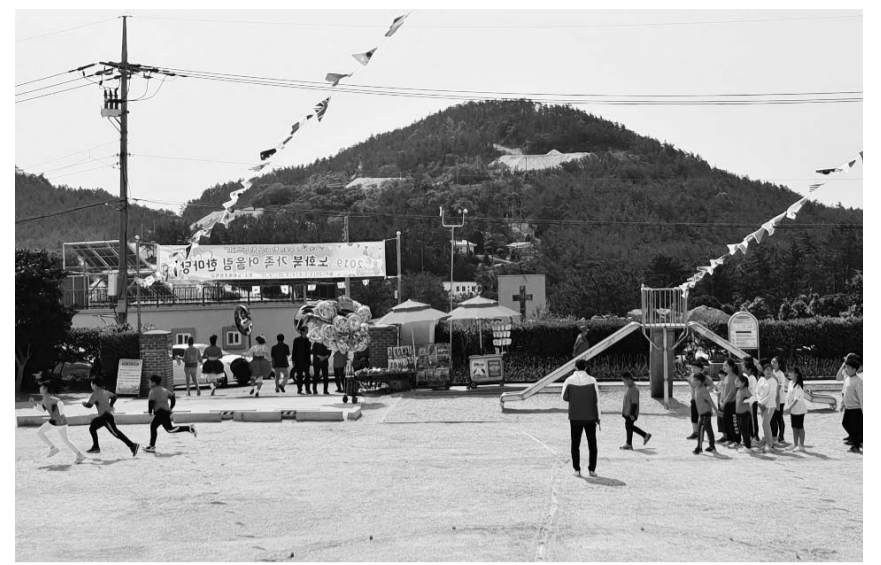
이 서비스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 왔으나 군산항 등 일부 구간에 편중 운영돼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수청에서는 그동안의 해양

기상신호표지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군산~여정도, 부안~위도 등 안개로 여객선 운항 통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을 중심으로 해양기상신호표지 3기를 재배치하고 추가로 시정센서 1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기상정보 전시스템을 여행객 및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산항연안여객터미널 및 격포항여객터미널 대합실에 설치하고,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완도 노화복초교서 '70~80년대 추억의 운동회'

학생·학부모 등 200여명 참석 공굴리기 등 '어울림 한마당'

완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 지역민, 학교가 함께하는 1970~80년대 모습의 운동회를 열어 주목을 받고 있다.

완도 노화복초교는 지난 8일 운동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운동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운동회에서는 이미 사라진 70~80년대 초등학교 운동회의 프로그램이 등장해 주목을 끌었다. 청색과 백색의 공을 굴리는 자모 공굴리기를 비롯해 학부모 계주, 장애인 달리기 등 10여 가지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노화복초교는 운동회를 앞두고 지역사회, 학부모와 함께하는 한마당으로 치르기로 했다.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동회 프로그램 초안을 서로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그런 때문인지 경기를 시작할 때마다 청군과 백군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

졌다. 운동회에는 학부모는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참여해 초등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냈다. 노화복초교 학생은 초등생 80명과 병설유치원 22명 등 모두 102명이다.

박철수 노화복초 교장은 "평소에 아이들의 운동회가 학교만의 행사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런 행사를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운동회는 또한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사가 됐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와 지역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위안 잔치를 열었다. 소철준 운영위원장은 "매년 학교 운동회때 지역의 어르신을 초청해 점심 한끼를 드리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내 부모라는 마음으로 조촐한 잔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출판본부장

보성군, 축제 통합 개최 '효과 있었네'

5월 다향대축제·철쭉제 등 잇따라 열려 방문객 60만명 찾아

보성군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대표 축제 4개를 통합 개최해 60만명이 찾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보성 다향대축제와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일립산 철쭉 문화축제, 울포 해변 활어잡기페스티벌이 잇따라 열렸다.

지난해까지 5월에는 다향대축제와 철쭉 문화제만 열리고 활어잡기는 8월, 소리축제를 10월에 열었으나, 보성군은 4개 축제를 통합해 5월에 열기로 했다.

축제가 매일 열리면서 보성을 찾는 관광객 수도 지난해 35만명에서 6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축제 개최로 400억원의 경제 효과를 본 보성군은 올해 축제 통합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76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경제 효과가 커진 것은 매일 축제가 이어지면서 체류형 관광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성의 대표적인 숙박시설인 제암산자연 휴양림은 축제 기간 예약률이 100%로 나타났고 울포 해변 다비치콘도도 주말에 만실을 기록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축제의 성공 여부는 관광객들의 숙박 여부에 달렸는데, 축제를 통합한 결과, 체류형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며 "군 전체를 하나의 축제장으로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임야 급매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회사 사정상 급매, 4500만원
- 문의. 010-6834-7400